

|       |                 |       |                          |
|-------|-----------------|-------|--------------------------|
| 보도 일시 | 2022. 12. 7.(금) | 배포 일시 | 2022. 12. 7.(금)          |
| 담당 부서 | 기획운영과<br>홍보계    | 책임자   | 과 장 김 년 수                |
|       |                 | 담당자   | 계 장 우 현 태 (051-664-2112) |

## 부산해경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 상금 전액 기부

- 이덕규 경사 등 5명, 순직 해양경찰관 가족에게 전액 전달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6일 해양 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현장 장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해양경찰관 5명이 모여 상금 전액을 순직 해양경찰관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 1501함 소속 이덕규 경사는 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5회 2022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에서 ‘스턴-로프 발사기’ 발명으로 은상과 함께 상금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후영 경장은 ‘공기튜브 골격 선박 침몰방지 리프팅 백’을 출품하여 은상을, 여수해경서 조영훈 경감은 ‘수중용 에어 롱 커터 그라인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서특대) 권재준 경위는 ‘갯벌 구조용 다기능 구조보드’, 보령해경서 김택규 경장은 ‘드라이슈트 특수 방화 내피’를 출품해 각각 동상과 상금을 받았다.

이들 5명은 상금을 모아 2016년 11월 강원도 삼척시 초곡항 인근 갯바위 고립자 4명의 생명을 구하다 서울 성 파도에 휩쓸려 순직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 유족과 2020년 6월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 동굴에 고립된 дай버 2명을 약천후 속에서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구조했지만 본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정호중 경장 유족에게 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하여 발명대회에서 변리업무를 맡은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0만원과 ‘비영리봉사단 희망이음 로프’에서 200만원을 함께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상금 및 성금 500만원은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비영리봉사단 희망이음 로프’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가족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덕규 경사는 “이번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의 취지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